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0. 21.(금) 조간 2022. 10. 20.(목) 11:00	배포 일시	2022. 10. 20.(목) 06:00
담당 부서 <총괄>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담당자	사무관 문승록 (044-200-5851)

2022년 해양수산분야 집중안전점검 완료
- 연안여객선, 항만시설 등 1,203개소 점검 및 379건 조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17일(수)부터 10월 14일(금)까지 3개월간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선박, 여객선 터미널, 어촌 숙박시설 등 총 1,203개소의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 약 1,800명의 정부·지자체 점검관 및 전문가가 참여했고, 점검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항만·어항 시설물의 경사면 등 사각 지대에는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최신장비를 동원하여 점검의 완성도를 높였다.

안전점검 결과 379개소의 안전 취약요소가 확인되어 현장에서 228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148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이행하고 파손된 항만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일부 여객선의 낡은 구멍조끼와 화재경보기는 새제품으로 교체 하도록 하였고,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비상 시 관람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탈출로 표시를 보강하도록 하였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집중 안전점검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민간전문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확인된 위해요소들은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들이 해양수산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담당자	사무관 문승록 (044-200-5851)
<항만시설 등>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책임자	과 장 임성순 (044-200-5950)
		담당자	사무관 박호진 (044-200-5957)
<국가어항 등>	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5651)
<위험물하역시설>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책임자	과 장 최종욱 (044-200-5770)
		담당자	사무관 장기봉 (044-200-5773)
<낙시어선 등>	어업자원정책관실 수산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30)
		담당자	사무관 박지훈 (044-200-5538)
<연안여객선>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변해중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황진실 (044-200-5738)
<등대문화공간>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870)
		담당자	사무관 한창승 (044-200-5874)
<박물관 등>	해양정책관실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태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류선희 (044-200-5229)
<자원관>	해양정책관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책임자	과 장 정재관 (044-200-5670)
		담당자	사무관 장성은 (044-200-5671)

참 고

해양수산분야 집중안전점검 결과

□ 점검대상 : 총 1,203개소

분 야		점검대상 (개소)	점검결과		
			현장시정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항만시설	42	3	20	3
	여항시설	212	2	15	0
	위험물하역시설	133	29	43	0
	유어장	17	1	2	0
건축물	여객터미널	31	7	16	0
	등대해양문화공간	9	0	2	0
	전시시설	4	1	3	0
선박	연안여객선	162	100	32	0
	낚시어선	520	76	4	0
숙박 시설	어촌민박	18	0	0	0
	어촌체험휴양마을	55	9	11	0
합 계		1,203	228	148	3

□ 점검사진



장관님, 연안여객선 군산 개야카훼리호 점검(22.8.12.)

국민안전감독관, 연안여객선 한솔2호 점검(22.8.18.)



영도등대해양문화공간 점검(22.9.21.)

국립해양박물관 점검(22.10.11.)